

ㅣ 발간사 ㅣ

##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의 지킴이



최정명

경기지부장 / 수원과학대학 간호과교수

2006년 한해도 직장인들은 사시사철 속에서 하루하루 각자의 직장생활을 통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고 겨울의 추위 속에서 2007년의 새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최근 수년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불안정으로 여름엔 과도한 무더위와 기습폭우가, 겨울엔 폭설과 맹추위가 또는 겨울답지 않은 봄 기운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일년 365일, 직장인의 건강 지킴이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업간호사의 역할은 계절이나 기후의 변화와는 대조적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직장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배려함으로써 건강한 직장생활을 가이드하고 지켜주는 일입니다.

즉, 산업간호사는 직장에서의 “건강지킴이”로서 “Safe Work”를 보장하는 도우미이고, 직장인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환경이나 작업을 최소화 내지 예방함으로써 질병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숨은 봉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직장에서의 “건강지킴이”에게는 2006년이 뜻 깊은 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 10월17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전문간호사가 73명이나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간호사의 역사를 되돌아해보면, 이미 1962년 이후 전국의 산업장에

산업간호사가 배치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에는 산업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 공식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산업간호사의 임무와 역할의 중요성은 거의 반세기 이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며 2006년의 “산업전문간호사”제도는 그 역할의 전문성을 반증하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Florence Nightingale는 “Notes on Nursing(1860년)”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I use the word nursing for want of a better. It has been limited to signify little more than the administration of medicines and the application of poultices. It ought to signify the proper use of fresh air, light, warmth, cleanliness, quiet, and the proper selection and administration of diet-all at the least expense of vital power to the patient.”라는 글을 통하여 간호의 목표를 질병 치료 이상의 건강 증진과 이를 위한 적절한 환경의 제공 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산업간호사의 임무 역시 Nightingale의 관점과 비슷하게 표현한다면 건강한 직장인을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직장인의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터에서의 건강유지 및 증진 방안 등을 직장인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산업간호사 여러분, 우리 일터 직장인들의 건강과 안전한 직장생활은 내가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책임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2007년의 새해에도 본인의 최선을 다하시기 부탁드립니다.